

“안전 무방비 알고 타시나요?”

死륜 오토바이 여행지 달리는 ‘시한폭탄’

ATV 이륜 자동차 구분 미신고 7곳 면허증 미확인 사고시 이용자책임 떠넘겨

여행지에서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사륜 오토바이(ATV)가 대부분 안전 무방비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다수 업체의 ATV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안 돼 번호판도 없는 레저용 기기를 운전면허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주는 곳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ATV란 ‘어떤 지형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탈 것’ (All-Terrain Vehicle)의 약자로, 주로 바퀴가 네 개 달려서 사륜 오토바이로 불리지만 도로 운행용은 ‘자동차 관리법’ 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의



ATV 체험장과 대여 업체 15곳의 안전상태를 조사했더니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10곳 중 사용 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하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한 미신고 레저용 ATV를 대여해줬다. 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10곳 중 이용자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확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조사대상 업체의 ATV 15대의 상태를 점검했더니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이 돼 있

는 등 기기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브레이크 등(제동등) 미작동이 12대(80.0%), 속도계 고장이 11대(73.3%), 미러(후사경) 미설치가 10대(66.7%)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다수 ATV에는 ‘동승자를 태우지 말라’는 경고문이 표시돼 있었지만 14곳(93.3%)은 동승자용 탑승안전장치가 없는 1인용 ATV에 2명이 탑승하도록 허용했다. 손잡이, 등받이 등 동승자용 안전장

치가 없는 1인용 ATV에 2명이 탑승했다가 사고가 나면 심하게 다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ATV 이용 중에 사고가 나면 조사대상 업체 중 1곳만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치료비 등을 배상했고 나머지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시 ATV 업체는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이용자에게 요구했다. 도로에서 레저용 ATV를 운행하다

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적용이 어려워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다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ATV로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용으로 사용신고 됐는지 여부(차량 번호판 부착 등)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SUV의 S클래스 ‘GLS’

SUV+쿠페의 만남 ‘GLE’

벤츠 이달 국내 최초 출시 ‘GLS’ 최신 기술+안정성 ‘GLE’ 기능+단단함 갖춰



전북 최초 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 오픈

전주 덕진구 위치 공식매장 4년/10만km이하 품질 기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전북 지역 최초로 전주시 덕진구에 벤츠 인증 중고차 전주전시장을 신규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은 벤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S-클래스 기반의 플래그십 SUV 모델인 ‘더 뉴 GLS’와 스포티 SUV ‘더 뉴 GLE 쿠페’를 이번달 안에 국내에 최초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두 모델 출시를 통해 국내에서 벤츠 SUV의 플라잉업이 완성된다고 벤츠코리아는 밝혔다. ‘SUV의 S클래스’라 할 수 있는 더 뉴 GLS는 프리미엄 7인승 플래그십 SUV로, 작년 11월 LA오토쇼에서 GLS라는 새 모델명과 함께 부분변경

경대 재탄생했으며 국내에는 처음 선보인다. 풀사이즈 럭셔리 SUV인 더 뉴 GLS는 넓은 공간을 자랑하며 그에 걸맞은 수준의 편안함, 민첩한 성능, 최신 벤츠의 기술을 접목한 최고의 안전성을 결합했다고 벤츠코리아는 소개했다. ‘SUV와 쿠페를 결합한 형태의 스포티 SUV’인 더 뉴 GLE 쿠페는 작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돼 특별

한 개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 고객층을 겨냥한 차량이다. 더 뉴 GLE 쿠페는 SUV의 다재다능함, 단단함과 함께 전형적인 쿠페스타일의 디자인 특징과 스포티함을 지녔다고 벤츠코리아는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SUV 2종 출시로 총 6종의 강력한 SUV 패밀리가 구축될 예정”이라며 “두 모델은 판매 볼륨이 많지는 않지만, 벤츠 SUV 라인업이 한층 더 강화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한 벤츠 차량을 인증 중고차에 매각하고 벤츠의 신차를 재구매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벤츠코리아는 전주 시장과 함께 있던 벤츠 전주 서비스 센터 내 사고 수리 부분 시설을 신축 건물 1층으로 옮겨 확장했다. 이는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비 약 2배 증가한 21개 워크베이를 운영한다.

같은 엔진인데? 공장차이?

美 쏘나타 엔진 결함 한국까지 번질까

현대차 미국소비자 전액 보상 13-14년식 같은엔진 리콜 포함 공장 아닌 엔진자체 문제 제기

현대자동차가 최근 ‘결함’ 논란에 휩싸인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의 미국 소비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이 차량을 구매한 모든 고객의 수리 비용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현대차는 보상 대상에 이 문제로 이미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한 2011~2012 쏘나타 뿐 아니라 2013~2014 생산된 쏘나타도 포함해 엔진 문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II 2.0L·2.4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로 엔진이 작동할 때 소음이 심하거나,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가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엔진 문제를 운전자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돌렸고 이 때문에 고객이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심지어 비용이 없어 차를 팔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엔진 수리비 일부 부담했지만, 그레이엄씨는 여전히 수리비 2천 달러와 렌터카 비용 800달러, 견인비 150달러 등을 스스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2011~2014 쏘나타 고객 88만5천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현대차에 제직 중인 한 직원이 현대차가 문제의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 47만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엔진 결함은 미국에 따르면 2011 쏘나타를 구매한 현대차씨는 차량 정비소에 3천 달러를 내고 엔진을 교체한 뒤 지난해 4월 14일 현대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엔진 수리비 일부 부담했지만, 그레이엄씨는 여전히 수리비 2천 달러와 렌터카 비용 800달러, 견인비 150달러 등을 스스로 내야 한다는



닛산 Q50 유료 6 모델 자발적 ‘판매 중단’

명칭 잘못 “성능 문제 아냐”

한국닛산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Q50 유료 6 모델의 인증서류에서 일부 데이터의 명칭이 잘못 표기된 것을 발견해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고 7일 밝혔다. 표기가 잘못된 서류는 환경부 인증을 위해 제출된 문서이며 차량의 배출가스나 연비 등 성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국닛산은 설명했다. Q50 유료 5와 닛산 캐시카이 유료 6 차종에서도 비슷한 표기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두 차종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다. Q50 유료 5는 Q50 유료 6의 전 모델로 판매가 중단됐다. 캐시카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 의문으로부터 판매중지를 당한 뒤 한국닛산이 행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판매가 가능하지만, 한국닛산은 환경부와 관련 논의가 끝날 때까지 자발적으로 판매를 보류한 상태다. 한국닛산은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날 환경부에도 이런 사실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차량 성능을 속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문서 내에 표기가 잘못 된 것뿐”이라며 “기존 차량 소유주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수입차 태풍피해차량 무상점검

수입차 업계가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상점검과 수리비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이번 달 31일까지 ‘침수피해 차량 특별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세브레도 특별점검 서비스를 한다. 전국 437개 세브레 서비스 네트워크에 수해 피해차량을 입고하면 자차보험 미적용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비의 50%를 감면하고 특별 서비스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무상점검을 한다. 한불모터스도 부산·창원·울산에서 수해 피해를 본 차량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수리 고객에게는 작업 공임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수리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